

통신3사, BMW와 차량 전용 e심요금제 출시

**- 차량 전용 e심요금제 첫 출시, BMW 전용 앱 MyBMW에서 가입 가능**

**- 모회선과 연동되는 e심 요금제 5종 출시, 용량 초과시 모회선 데이터 공유**

**- BMW 뉴7시리즈 뒷좌석의 대형 스크린에서 망접속 절차 없이 동영상 시청 가능**

|  |
| --- |
| **※ 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****※ 통신 3사가 공동 배포하며, BMW코리아에서도 별도 보도자료 배포합니다** |

**[2023. 5. 2]**

통신 3사가 BMW와 함께 차량 전용 e심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일(화) 밝혔다.

차량용 e심은 별도의 물리적인 칩 없이 차량에 내장된 식별칩을 활용하여 모바일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. BMW 차량 뒷좌석 모니터를 통해 유튜브 등을 보기 위해서는 통신사 무선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, 이 때 차량용 e심 서비스가 필요하다.

통신 3사의 첫 차량용 e심요금제는 총 5종이며,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모회선 데이터 공유 한도 내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.

차량용 e심서비스는 e심 서비스와 차량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(OS 8)이 적용된BMW 차량 고객이 ‘MyBMW’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.

특히 지난해 12월 국내에 출시된 BMW 뉴 7시리즈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‘BMW 시어터 스크린(BMW Theatre Screen)’에 내장된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.

요금제 가입 고객은 차량 내에서 BMW ID로 로그인해야만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며, 로그인 후 동영상 시청은 물론 와이파이 핫스팟 이용도 가능하다.

한상윤 BMW코리아 대표는 “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BMW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”, “BMW 뉴 7시리즈 고객은 차량이 선사하는 새로운 차원의 차량내 디지털 경험을 통신 3사의 최첨단 서비스를 통해 보다 쾌적하게 누릴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신용식 SKT 커넥트인프라 CO 담당은 “BMW e심 요금제는 SKT가 선보이는 첫 차량 전용 e심요금제”라며, “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고 차량내 엔터테인먼트 기기 확대에 맞춰 고객이 편의에 맞게 선택 가능한 요금제를 출시했다”고 말했다.

※ 통신 3사의 e심요금제 소개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SKT | KT | LGU+ |
| 월 요금제(VAT 포함) | 스탠다드 250MB, 8800원프리미엄 150GB, 49500원 | 베이직 600MB, 9900원프리미엄 2.5GB, 19800원 | 프리미엄 3GB, 16500원 |

|  |
| --- |
| **※ 사진설명**통신 3사가 BMW와 함께 차량 전용 e심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일(화) 밝혔다. 차량용 e심은 별도의 물리적인 칩 없이 차량에 내장된 식별칩을 활용하여 모바일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. |

**▶ 관련문의 : SK텔레콤 PR실 비전PR팀 허재영 매니저(02-6100-3831)**

